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4, pp.37-69
<https://doi.org/10.29212/mh.2020.114.3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베트남전쟁기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과정 고찰

이신재*

1. 서론
2. 파월한국군의 전투식량 문제
3. 한국형 전투식량의 개발과 군납
4.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 결과
5. 결론

1. 서론

“군대는 위(胃)로 행군한다”는 말이 있다.¹⁾ 전쟁에서 식량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전쟁에서 식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인간이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식

*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마르틴 반 크레펠트 저, 우보형 역, 『보급전의 역사』, 플래닛미디어, 2010, 79쪽.

주에 대한 논의에서 식(食)의 문제는 전쟁에서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전쟁에서 먹는 문제, 즉 식량보급의 중요성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강조되어왔으며, 전사에서 식량보급을 포함한 군수 문제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군대가 자국이 아닌 해외의 전쟁에 참가해 낯선 환경 속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면 식량문제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안정적이고, 적시에 식량을 보급해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낯선 환경에서 부패와 변질 없이 전투식량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 전쟁에서 군인들의 먹는 문제는 전투식량(MRE: Meal, Ready-to-Eat)의 발전을 가져왔다. 전투식량의 휴대와 보관, 이동, 그리고 조리의 편의성에 대한 강조는 평시에도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군의 경우 크게 A, B, C-레이션(Ration) 등 세 가지 형태의 전투식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도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²⁾

한국군의 첫 해외파병이었던 베트남전쟁 당시에도 식량보급 문제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연인원 32만여 명이라는 대규모 군대가 한반도와는 전혀 다른 열대성 기후 속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었다. 한반도와 베트남 간의 지리적 거리 또한 한국군에 대한 보급지원 측

2) A-레이션은 주둔지역에서 냉장시설이 완비된 부대에 한해 보급되며, 신선한 식품을 다양한 기호를 고려해 조리해 급식하는 식단이다. B-레이션은 취사장비는 갖추고 있으나, 냉장시설이 없는 부대에 적합하도록 부패성 식품을 변질되지 않게 캔(CAN)에 포장한 식단이다. C-레이션은 작전 또는 이동이 빈번하여 취사를 할 수 없는 야전에서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바로 취식할 수 있도록 통조림으로 만들어진 식단이다. 주월사정리단, 『월남전 종합연구』, 주월사정리단, 1974, 1198쪽. 한편 미국은 현재도 병사들의 종교와 식성까지 고려해 24종의 전투식량을 운영 중이고, 영양소와 맛을 증대하고, 사막이나 극지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투식량을 개발 중이다. 『중앙일보』, 2015년 11월 4일.

면에서는 어려운 과제였다.³⁾ 이로 인해 참전이라는 파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먹는 문제는 다른 분야의 문제와 함께 파병 준비단계에서부터 중요하게 고려될 수 밖에 없었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이 ‘K-레이션’이라고 불린 한국형 전투식량을 사용했다는 것은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⁴⁾ 그러나 K-레이션에 대한 내용은 참전자 회고록이나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일부 자료에 단편적으로 확인되는 정도이다. K-레이션의 개발 배경과 과정, 그리고 한국군에 대한 보급과 사용실태에 대한 사항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다. 더 나아가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식량보급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베트남전쟁이 한국군의 첫 해외파병이고, 한국군 현대화의 본격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당시 한국군이 자체로 개발한 첫 전투식량인 K-레이션과 한국군 식량보급에 대한 연구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한국형 전투식량의 개발을 당시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와 연계해 볼 때 전쟁과 경제의 관계에서도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당시 식량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파병 당시 한국군의 식량보급 문제에 대한 고민과 준비과정, 한국형 전투식량의 등장 배경, 한국형 전투식량의 제작 및 보급과정,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베트남 파병당시 한국군의 전투식량 문제에 대한 미군 및 남베트남과의 협의사항과 한국형 전투식량 문제의 제기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한국형 전투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시 한국정부가 만들었던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Korea General

3) 부산항에서 베트남의 캄란(Cam Ranh)까지는 2,124해리로 베트남전쟁 당시 수송선으로 약 5일이 걸렸다.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 제10집』, 전사편찬위원회, 1985, 598쪽.

4) K-Ration은 미군의 C-레이션과 같은 휴대용 전투식량의 일종으로 여기서 K는 영어단어 Korea에서 붙여진 것이었다.

Foods Co)의 설립과 운영, 국산 전투식량 개발 및 미국과의 군납 교섭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 결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5장은 이 연구의 결론이다.

2. 파월한국군의 전투식량 문제

가. 파월한국군의 식량문제 협의

한국은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하면서 군인들의 먹는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본국의 식량을 베트남 현지로 수송해 활용하는 것이었지만, 기후 차이와 지리적 거리, 그리고 경제여건 등의 제한으로 국내 식량을 보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베트남에 파병되는 한국군에 대한 식량보급 문제는 비전투부대에서부터 전투부대의 파병에 이르기까지 남베트남 및 남베트남 주둔 미군과 협의를 통해 해결되었다.

당시 한국군이 남베트남 및 미군과 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항은 큰 틀에서 보면, 남베트남 측으로부터는 쌀, 소금, 설탕, 식유(食油), 차(茶)를 제공받고, 미군으로부터는 미군이 사용하는 전투식량을 제공받는 것이었다. 한국군이 본국으로부터 별도로 준비하는 사항은 없었다. 이것은 대체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먼저, 1차 파병이었던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 파병에서 식량문제에 대한 논의는 선발대의 베트남 파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선발대의 임무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비롯해 주둔지 선정과 파병에 따른 각종 준비사항 등 50가지에 달했다.⁵⁾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해 선발대장 이훈섭 준장은 남베트남군 주

5)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국, 「선발대장에게 부여할 임무(1964.7.10)」.

둔 미 군사원조사령부(US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이하 USMAC-V로 표기) 및 남베트남군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USMAC-V의 대표였던 아담스(M. B. Adams) 소장, 오스만스키(F. A. Osmanski) 준장과 협의를 거쳐 1964년 9월 6일 ‘한미실무자급 합의서’를 체결하였다.⁶⁾ 합의서에는 한국군 식량문제에 대해 남베트남군에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식량(쌀, 소금, 설탕, 식유, 차)을 남베트남군 총사령부가 한국 이동외과병원 요원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태권도교관단에 대해서는 숙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USMAC-V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한국군에 대한 식량보급은 이동외과병원(130명)과 태권도 교관단(10명)에 대해 각각 남베트남 및 미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1차 파병당시 별도의 ‘전투식량’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1차로 파병된 부대는 의료부대와 태권도교관단으로 전투와는 무관하였기 때문이다.

2차 파병을 위해 파견된 선발대 역시 남베트남 및 USMAC-V측과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1965년 2월 7일 선발대 대장으로 다시 파견된 이훈섭 준장과 남베트남군 대표 부이 휴 논(Bui Huu Nhon) 준장 간에 ‘한월(韓越)군사실무자 협정서’가 체결되었다.⁷⁾ 이 협정서 제9조에는 남베트남군에 지급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한 기본식량품목(쌀, 소금, 설탕, 식유, 차)을 남베트남군이 한국군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1차 파병 때와 동일하였다. 선발대는 USMAC-V와도 이 문제를 협의하였다. 미군의 처음 입장은 “한국군에 대한 급식은 한국군이 본국에서 지급받는 수준과 같은 금액을 베트남 현지에서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측은 ‘Same Base, Same Level’, 즉 국내의 한국군이 아니라 베트남에 주둔하

6) 이훈섭,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샘터, 1991, 483~484쪽.

7) 이훈섭, 위의 책, 485~491쪽.

고 있는 미군과 같은 기준의 보급을 요구하였고, 이를 관철시켰다. 이것은 이후 3차 파병이었던 전투부대 파병에서도 계속 적용되었다.⁸⁾ 이러한 합의내용은 1965년 2월 8일 USMAC-V의 참모장인 스틸웰(R. G. Stillwell) 소장과 체결한 ‘한미군사실무자협정서’에 포함되었다.⁹⁾

그러나, 협정서에는 하나의 단서조항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한국인의 독특한 지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식량품목은 미군 군원에서 제공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식량은 바로 된장, 고추장, 김치 등 한국인들이 주로 먹는 식량을 말하는 것이었다.

3차 파병에서도 2차 파병 당시 체결된 식량보급에 관한 합의 사항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전투부대 파병에 앞서 베트남에 파견되었던 연락장교단장 이세호 소장은 1965년 9월 6일 USMAC-V 참모장인 로손(W. B. Rosson) 소장과 ‘한미군사실무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이 약정서 제9조에는 “USMAC-V는 미군에게 공급되는 동일한 기준금액을 초과치 않는 동일한 수준의 식량을 한국군에게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2차 파병 때와 동일하게 한국인의 독특한 지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식량은 미군이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¹⁰⁾ 1965년 9월 5일 남베트남군 대표 잔 응옥 탐(Tran Ngoc Tam) 소장과 체결한 ‘한월군사실무약정서’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남베트남군에게 지급되는 동일한 기준의 쌀을 남베트남군이

8) 이훈섭, 앞의 책, 165-167쪽.

9) 이훈섭, 위의 책, 492-497쪽.

10)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국방부, 1981, 251쪽. 1965년 12월 15일 체결된 ‘한미경리실무 약정’ 제2부(직접경리지원) 제1조(급식)에는 “주월한국군에 대한 급식은 1965년 9월 6일부 주월한국군사령부 및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간에 체결된 군사실무협정 조항에 의거 지급되는 군량의 종류 및 가용성에 따라 1일 1인당 \$1.05부터 \$2.04범위의 달러액 기준 한도내에서 지원된다”고 명시하였다.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258쪽; 이훈섭, 앞의 책, 511쪽.

한국군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¹¹⁾

이로써, 베트남에 파병되는 한국군의 식량보급은 남베트남과 미군으로부터 2중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남베트남으로부터는 쌀을 포함해 소금, 설탕, 식유, 차를 보급받고, 미군으로부터는 미군에게 공급되는 동일한 기준의 식량을 지원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치로 대표되는 한국식품에 대한 공급은 미군이나 남베트남 측 모두 제공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 한국형 전투식량 보급 문제 제기

베트남에 파병되는 한국군의 식량문제는 남베트남 및 미군과 협정을 체결하면서 해소되었다. 그러나, 한국군의 식량과 관련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파병초기 남베트남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쌀이 적시에 보급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지만 이는 곧 해결되었다.¹²⁾ 미군 전투식량을 처음 사용하는 데 따른 조리법의 실수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적응할 수 있었다.¹³⁾

그러나, 한국군이 미군과 체결한 협정에서 명시되었듯, 미군은 ‘한국인의 독특한 지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식량품목은 미군 군원에서 제공치 않는다’라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여기서 특히

11)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255쪽.

12) 파병초기 미군으로부터 C-레이션은 보급을 받았지만, 남베트남군으로부터 쌀의 보급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월한국군 사령관 채명신이 남베트남군 고위당국과 협의하여 3개월이 지나서 쌀을 보급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3개월간은 미군 C-레이션만 먹었다는 것이다.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 팔복원, 2013, 225쪽.

13) 1965년 10월 해병 제2여단 대대장으로 참전했던 오윤진은 ‘식량으로 B, C-레이션이 나왔는데, 우리는 처음 접해보는 것이었다. 취사병들이 B-레이션 강통 속의 내용물도 모르고 요리를 할 줄도 몰라 처음에는 술에 넣고 물을 부어 꿀꿀이 죽처럼 그냥 끓여 먹었다. 그러니까 맛이 시끄덜덜하고 괴상하였다. 처음에는 엉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차츰 나아졌다고 회고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3권』, 국방부, 2003, 30쪽.

한국인 고유의 식문화라고 할 수 있는 ‘김치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한국인의 매끼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김치였는데, 이것을 남베트남군이나 미군은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군과 남베트남군으로부터 충분한 열량의 식량을 보급받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군에서는 한국 음식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한 주월한국군 채명신 사령관의 언급은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월남쌀로 밥을 짓고, C-레이션으로 찌개나 국을 끓여 먹이니 장병들이 입맛이 살아나 살이 찌는 현상까지 생기게 되었지만 C-레이션 찌개나 국도 한도가 있었다. 우리나라 음식에 길들여진 장병의 입맛에 맞을 리 없었던 것이다. 내가 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듣는 건의사항이 무기나 탄약 그리고 한국에서는 귀했던 휘발유 같은 보급품이 아니라 된장, 고추장, 김치가 먹고 싶다는 것이었다.¹⁴⁾

파병 초기 김치 문제는 많은 참전 장병들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1966년 제6후송병원 간호장교로 근무한 김영숙 대위는 환자들을 위해 김치를 직접 만들어 주기도 했는데, 이때가 제일 기뻐고, 환자들도 이때가 기억에 남는다고 증언한다.¹⁵⁾ 포병대대 관측장교로 파병되었던 지만원 대위는 야외에 나오면 C-레이션을 먹어야 했는데, 병사들이 통조림 고기에 질려 추수가 끝난 밭에 남아있던 고추를 잘라 C-레이션과 함께 먹기도 했다고 한다.¹⁶⁾ 또 국내에서는 ‘파월장병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베트남 파병 장병들에게 김치,

14) 채명신, 앞의 책, 225쪽.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권』, 국방부, 2001, 872쪽.

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2권』, 국방부, 2002, 180쪽.

고추장 등을 보내는 운동도 전개되었다.¹⁷⁾

김치문제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북한군도 똑같이 겪는 문제였다. 북한군도 당시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김치를 만들어 항공편으로 베트남에 파병된 조종사들에게 보급하였다.¹⁸⁾ 또 한국군 작전 지역에서 활동했던 북한 심리전부대는 베트남(Vietcong)측에서 만들어 준 김치를 제공받거나, 자체로 김치를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¹⁹⁾

한국군에 대한 김치 문제는 미 상원의 청문회에서도 등장할 정도였다. 한국군에 김치가 보급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1970년 2월 24일 개최된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이른바 사이밍턴(Symington) 청문회에서 풀브라이트(J. W. Fulbright)의원이 김치가 무엇이냐고 묻자, 포터(William J. Porter) 주한 미국대사는 “배추, 생선, 마늘, 그 밖의 것을 한데 절인 것으로 한국음식에는 꽤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몇 달 잘 익으면 일종의 단백질 물체가 된다.”고 답변한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원이 “베트남까지 가서 그들이 얻는다는 것이 썩은 내 나는 생선기름이란 말인가?”라고 묻자, 포터는 “김치란 그런 성질의 것이다. 김치 문제는 주월한국군이 급식분야에서 당면한 한 가지 문제였다”고 답변한 바 있다.²⁰⁾

17) 파월장병지원위원회, 『자유의 십자군』, 파월장병지원위원회, 1967, 36쪽; 파월장병지원위원회, 『파월장병에게 김치보내기 운동계획(1967.1.23)』; 윤충로, 『베트남전쟁 참전의 안과 밖』, 『한국현대생활문사 1960년대』, 창비, 2016, 181쪽.

18) 이신재,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군사편찬연구소, 2017, 123쪽. 김일성은 1966년 10월 19일 베트남으로 파병가는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조선사람들은 된장, 고추장, 김치 등을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면서 베트남에는 이런 것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쌀과 된장은 북한에서 가져가고, 김치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일성, 『월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국제적의무로 된다(조선인민군 제203부대 군인들과 한 담화(1966.10.19.))』, 『김일성전집』 제37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 383-384쪽. 북한은 베트남을 ‘월남’으로 표기한다.

19) 『동아일보』, 1969년 10월 23일.

20) 국회도서관,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이밍턴위원회 청문록)』, 국회입법조사국, 1971, 53-54쪽.

김치 등 한국형 식단의 보급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한국군사령관 채명신은 USMAC-V에 한국 고유의 음식을 전투식량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미군에서는 한국식 음식으로 구성된 새 C-레이션을 보급해 주었다. 여기에는 밥, 김치, 콩치 통조림 등이 포함되었다.²¹⁾ 채명신에 따르면, 맛도 괜찮았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하와이에 있는 일본 사람이 만들어 납품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고유의 음식인 김치를 일본 사람이 만든 것을 장병들에게 먹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채명신은 김치 등 한국식으로 만든 전투식량을 국내로부터 지원받고자 국방부에 국산 김치 통조림 제작을 요청했다. 이것은 일본인이 만든 김치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가능하다면 한국산 전투식량을 미군에 납품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였다.²²⁾

당시 한국정부가 국산 전투식량의 개발을 통해 미군에 납품을 시도한 배경에는 1966년 3월 4일자 이른바 ‘브라운각서(Brown Memorandum)’가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주한 미국대사 브라운(Winthrop G. Brown)이 이동원 외무장관에게 보낸 이 문서는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에 대한 미국의 원조약속이 담겨있었다. 브라운각서 상의 경제협조사항에는 ‘남베트남 주둔 대한민국 부대에 소요되는 보급물자 용역 및 장비를 실행할 수 있는 한도까지 대한민국에서 구매하며, 남베트남 주둔 미군과 남베트남군을 위한 물자 중 결정된 구매품목을 한국에 발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²³⁾

21) 채명신, 앞의 책, 226쪽.

22) 채명신, 위의 책, 227쪽.

23) 전사편찬위원회, 1981, 266쪽. 다만 여기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구매품목이 ①한국에 생산능력이 있을 경우, ②한국이 규격과 납품 예정기일을 맞출 수 있을 경우, ③한국의 물품가격이 극동의 기타 공급 가능처 가격과 비등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경우, ④기타점에 있어서 구매가 합중국 국방성의 규정과 절차에 부합할 경우이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에서 생산한 군복, 정글화 등이 납품되고 있었다.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한국형 전투식량의 개발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식량보급문제를 해소하고, 군납을 통한 수출도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⁴⁾

3. 한국형 전투식량의 개발과 군납

가.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의 설립

한국형 전투식량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이를 맡아 추진할 조직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이하 ‘대한종합식품’으로 약칭)이다. 대한종합식품은 베트남 전쟁기 주월한국군에 대한 한국형 전투식량의 생산 보급 및 종합관리를 목적으로 1966년 9월 1일 서울시 중구에 설립된 회사였다. 국내 23개 통조림 공장을 모체로 만들어진 이 회사의 설립에 들어간 비용 2억 5천만 원은 전액 산업은행이 출자하였다.²⁵⁾ 초대 사장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최영희였으며, 예비역 장군인 양국진과 산업은행 출신의 이형철이 부사장으로 임명되었다.²⁶⁾

24) 1966년 8월 10일 외무부는 남베트남에 대한 군납제기와 관련한 브라운 대사의 공한을 접수하고, 군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국내 업계에 대한 정부지원을 전개하고 있었다. 외무부, 「한국군월남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원조에 관한 주한미대사 공한실천현황 1966년도 종합검토 보고서(1966.12.30)」, 14쪽.

25) 『경향신문』, 1966년 8월 31일; 『매일경제』, 1966년 9월 2일.

26) 이후 최영희는 국회의원을 거쳐, 1968년 2월 국방장관에 임명되었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담당했던 양국진이 사장으로 1972년까지 활동하였다. 1972년 9월에는 김두만(전 공군참모총장)이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1974년 민영화 이후에는 김두만은 이 회사의 회장으로 추대되고, 한국스레트그룹 회장(백산그룹의 전신) 김인득이 사장이 되었다.

대한종합식품의 설립은 1966년 5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에 대한 ‘지시 각서’로부터 출발하였다.²⁷⁾ 이 지시 이후 바로 상공부에 ‘종합식품공업심의위원회’가 5월 10일 구성되었다.²⁸⁾ 이 위원회는 식품공업에 대한 지도육성과 베트남 파견 국군 및 기술자를 위한 종합식품의 국산화와 그 조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⁹⁾ 이어서 6월 14일 산업은행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식품회사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8월 19일에는 국내 50여 개 통조림 가공업체 중 시설, 기술, 경영능력 등을 조사하여 비교적 우수한 업체 23개 공장을 후보공장으로 선정한 뒤 9월 1일부로 대한종합식품이 설립되었다.³⁰⁾

이 회사는 한국형 전투식량의 개발과 생산, 보급의 전 과정을 담당했다. 전투식량의 생산과 관계되는 각각의 통조림공장, 통조림 용기의 제조를 담당하는 제관공장, 통조림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 등이 관여되어 있었다. 대한종합식품은 이러한 생산공장을 모두 관리하였고, 수출입 업무도 관할하였다. 대한종합식품은 설립과정에서 알 수 있듯, 정부주도의 회사이었으며, 경제기획원, 농림부, 상공부 이외에 외무부, 국방부 등 유관부서가 모두 관여하고 있었다. 실질적인 감독은 농림부로 일원화되었고, 관계부처는 행정지원을 담당하였다.³¹⁾

대한종합식품은 1973년 3월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군한

27) 상공부, 「국무회의 의안번호 제176호(1967.6) C-레이슨 대미납품교섭에 관한 추진 현황」.

28) 『매일경제』, 1966년 5월 25일.

29) 종합식품공업부문위원회는 상공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은 청와대 정무(수산)담당비서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재무부 이재국장, 국방부 군수국장, 농림부 농업생산국장, 상공부 상역국장, 국립보건원 검정부장, 중앙수산업연구소장, 한국산업은행 관계이사, 그리고 식품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등이었다.

30)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씨레이슨 대미 교섭 경위와 대책에 대한 건의(1966.11.8)」.

31) 농림부,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행정감독체계 일원화(1968.2.28)」.

뒤 전투식량의 수출 판로가 막히게 되자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한국군 철군 이후 한동안 유지되던 대한종합식품은 1974년 11월 최대 주주였던 산업은행이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설립 6년여 만에 완전 민영화되었다.³²⁾

나.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과 미군의 품질 검사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은 1966년 5월 7일 국내 전투식량 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 이후 곧바로 추진되었다. 산업은행에 구성된 종합식품회사설립추진위원회 주도로 1966년 7월 5일 1차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어서 8월 5일에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메뉴를 확정짓고, 2차 시제품을 제작하였다.³³⁾ 당시 국내에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건립된 통조림 생산시설이 계속 운영되고 있었고, 광복이후에는 유엔한국재건단(UNKRA)과 미 국제개발처(USAID) 등의 지원을 받아 통조림 제조산업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품질수준은 낮을지라도 시제품 생산은 가능한 상태였다.³⁴⁾

그러나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군의 군납기준을 충족시켜야 했고, 특히 김치를 통조림으로 만드는 것은 이전에는 없던 것이라 기술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추진위원회는 1966년 8월 11일 생산된 시제품 10상자를 베트남의 채명신 사령관에게 보내 새롭게 제작한 한국산 전투식량의 평가와 함께 미군과 현지 교섭을 지시하였다.³⁵⁾ 그러나, 당시 시제품에 대해 채명신은 문제가 있었다고 회고한다. 김치 통조림에서 시샘건 녹

32) 『동아일보』, 1974년 11월 6일.

33) 상공부, 「국무회의 의안번호 제176호(1967.6) C-레이슨 대미납품교섭에 관한 추진 현황」.

34) 상공부, 「상공부장관이 UNKRA 대표에게 보낸 서신(1954.5.10)」.

35)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국방장관과 합동군사고문단장과의 회의록(1966.11.7)」.

물이 나와 먹을 수 없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때까지 국내 통조림 제조기술이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열대 기후에서 식품의 변질을 막는 기술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부족한 통조림 제조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종합식품의 기술부를 외부의 전문가로 개편하는 한편 특수분야의 기술적인 개발을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기술자를 기술고문으로 초빙도 하였다. 또한, 제품 포장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부산에 건립하였다.³⁶⁾

이를 통해 보완된 시제품을 1966년 9월 12일 주한 미 합동군사고문단을 통해 미 육군의 네이틱(Natick) 시험소로 보냈다.³⁷⁾ 네이틱은 미군의 전투복, 전투식량 등 전투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³⁸⁾ 한국이 자체 생산한 전투식량을 미군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했다. 당초 예상으로는 1967년 4월쯤 최종 시험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네이틱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수시로 진행결과도 알려졌다. 1966년 12월 주미대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1차 분석결과 칼슘이 불충분하고, 비타민 A 및 C가 충분하지 못하며, C-레이션 중량이 미군용 C-레이션에 비해 절반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³⁹⁾ 그러나, 1967년 2월에는 한국 김치 통조림이 성분 내구성 시험을 통과했고, 고온에서 김치성분의 내구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군 관계자를 통해 알려졌다.⁴⁰⁾ 이후 최종 시험결과는 시제품을 보낸

36) 경제기획원, 「식료품 공업에 관한 번스턴 저장 회한(1967.1.26)」;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씨레이션 대미 교섭 경위와 대책에 대한 건의(1966.11.8)」.

37)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국방장관과 합동군사고문단장과의 회의록(1966.11.7)」.

38) 네이틱은 미 육군 산하기관으로 이 기관이 위치한 메사추세츠주 네이틱의 지명이기도 하다. 네이틱 군인연구발전공학센터(NSRDEC : Natick Soldier Research, Development and Engineering Center)에서는 미 육군의 신형 물자시스템의 개발 및 테스트, 전투식량 및 미래 전투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39) 외무부, 「한국군월남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원조에 관한 주한미대사공한실천현황 1966년도 종합검토 보고서(1966.12.30)」, 14쪽.

40) 『매일경제』, 1967년 2월 28일.

지 약 7개월이 지난 1967년 3월 29일 나왔다. 결과는 한국의 시제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하다는 평가였다. 이로써 김치 통조림을 포함한 한국형 전투식량의 미군 군납을 위한 기술적 조건이 충족되게 되었다.

다. 대미 군납 교섭과 계약 추진

전투식량 시제품에 대한 미군의 품질검사가 전개되는 것과 동시에 대미 납품을 위한 교섭도 함께 진행되었다. 대미교섭의 책임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장관에게 부여되었으나, 상공부, 외무부, 경제기획원에서도 측면지원하였다.⁴¹⁾

한국정부의 대미교섭은 베트남과 한국, 미국에서 상호 연계하여 전개되었다. 먼저, 베트남 현지에서는 채명신과 USMAC-V와의 교섭이 이루어졌다. 미군 측에 한국산 제품의 군납을 설득하고, 이것을 미 국방부에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군에 대한 한국형 전투식량의 보급은 두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인 장애에 부딪치게 된다. 하나는 국내의 통조림 제조기술이 미국의 군납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1970년 1월 주한 미국대사 포터도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해 “이것은 근본적으로 김치를 통조림화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고 발언한 바 있다.⁴²⁾ 다른 하나는 당시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제공받는 국가의 제품은 미 군납으로 받을 수 없다는 미국법이였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이른 바 곡물차관(PL-480)을 통해 많은 양의 식량을 원조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통조림 제조 기술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국내 회사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미군의 기술검사를 통과

41) 대한중합식품주식회사, 『씨레이션 대미 교섭 경위와 대책에 대한 건의(1966.11.8)』.

42) 국회도서관,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이명턴위원회 청문록)』, 53~54쪽.

함으로써 해결되었다. 피원조국가의 물품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물물교환 형식으로 타결되었다. 채명신이 USMAC-V의 웨스트모어랜드(William C. Westmoreland) 사령관에게 한국형 전투식량의 수출대금을 한국이 미국에서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물물교환 형식을 제의해 타결되었다.⁴³⁾ 이 과정에서 1966년 10월 28일 박정희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수행한 국방장관이 MAC-V 사령관을 만나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하였다.⁴⁴⁾

베트남현지에서 채명신 사령관과 USMAC-V 사령관 간에 한국형 전투식량 군납에 의견이 합의된 이후, 1966년 10월 6일 USMAC-V는 현지 사령관에게 부여된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의 시험 조변(調辯)을 상급부대인 태평양사령부에 건의하였다. 이 건의는 10월 25일 원안대로 미 국방부에 건의되었다.⁴⁵⁾ 10월 31일에는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과 함께 방한한 러스크(David D. Rusk) 국무장관에게 유엔군사령관을 통해 한국측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진전된 성과는 얻지 못했다. 11월 7일에는 이후락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라운 주한 미 대사를 만나 전투식량 군납 문제를 논의하였지만, 확정적인 답변을 얻지는 못한 상태였다.⁴⁶⁾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양국 정부 간에 정치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미국과의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한다.⁴⁷⁾

우선, 한국정부는 1966년 11월 10일 미국주재 한국대사관의 이규성 공사와 수석무관이 국무부 극동담당부차관보를 만나 대미 군납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네이틱의

43) 채명신, 앞의 책, 229쪽.

44) 대한중합식품주식회사, 「국방장관과 합동군사고문단장과의 회의록(1966.11.7)」.

45) 외무부, 「한국군월납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원조에 관한 주한미대사공한실천현황 1966년도 종합검토 보고서(1966.12.30)」, 13쪽; 대한중합식품주식회사, 「전투식량 30만식 시험 생산계획(1966.10.7)」, 3쪽.

46) 대한중합식품주식회사, 「국방장관과 합동군사고문단장과의 회의록(1966.11.7)」.

47) 대한중합식품주식회사, 「씨레이슨 대미 교섭 경위와 대책에 대한 건의(1966.11.8)」.

시험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시험결과가 양호하더라도 적정 가격과 공급능력, 그리고 미국의 국제수지와 베트남 전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한국정부는 1967년 3월 3일 정일권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을 미국에 보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였다. 납품 가격 인하가능성과 전투식량 납품대금을 대미 수입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제안도 하였다.⁴⁸⁾

이러한 대미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1967년 4월 네이틱에서 한국의 통조림 시제품에 대한 미국의 시험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납품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오자, 1967년 5월 12일 미국은 한국산 전투식량 구매 의사를 표시하고, 한국 측의 의견을 타진해 오기 시작했다.⁴⁹⁾ 이어서 1967년 5월 15일 미국은 전투식량 품목 중 김치에 대한 우선구매를 표명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대미교섭방침을 확정하여 강력히 추진해야 할 단계로 평가하고 교섭에 나갔다.⁵⁰⁾ 그리고, 1967년 5월 31일 대미납품교섭방침을 확정하고, 주미대사에게 정식으로 훈령을 보냈다. 훈령의 내용은 1967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967년 7월부터 공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⁵¹⁾

그러나, 가격측면에서도 한·미간의 이견이 존재했다. 한미 양측이 제시한 단가는 한국측이 63달러, 미국측이 56.51달러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양국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급단가 58.975달러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1967년 10월 7일 경제기획원장관과 주한미 대외원조처(USOM) 처장 간에 합의 서명하였다.⁵²⁾ 당시 한미

48) 삼화제관주식회사, 「삼화제관주식회사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낸 문서-수출용 통조림 공관 및 C-Ration 제조시설 완료와 현황보고(1967.1.17)」.

49) 삼화제관주식회사, 「삼화제관주식회사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낸 문서-수출용 통조림 공관 및 C-Ration 제조시설 완료와 현황보고(1967.1.17)」.

50) 외무부, 「한국군월남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원조에 관한 주한미대사공한실천현황보고-경제협조부분(1967.6.12.)」, 15쪽.

51) 외무부, 위의 문서, 9쪽; 삼화제관주식회사, 위의 문서.

52) 대통령비서실, 「보고번호 제67-754호, 파월장병의 전투식량(C-레이슨) 생산공급에 관한 보고(1967.10.17)」.

간의 합의내용을 보면, 일단 1968년 6월 30일까지 약 7개월분에 해당하는 7,093,985달러의 K-레이션을 납품하는 것이었다. 1차분 납품 개시시점은 12월 28일로 하였다. 한미 간에 납품 계약이 체결 되자, 청와대에서는 대한종합식품에 대해 생산부족 자금 8억 3000만 원의 긴급지원과 수출검사법에 의한 자체 검사기관 지정, 수출금융 회수기한 연장 등을 지원하였다.⁵³⁾

라. 미국 군납계약과 K-레이션 제품화

1967년 10월 7일 한미 간의 전투식량 납품계약 체결 후 10월 20일부터 대한종합식품과 생산공장에서는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였다.⁵⁴⁾ 이렇게 생산된 국산 전투식량은 1967년 12월 30일 109만식분의 1차 선적에 이어 1968년 1월 8일 215만식분이 선적되어 베트남으로 향했다.⁵⁵⁾ 이로써 주월한국군에는 1968년 1월부터 K-레이션이 보급되었다.⁵⁶⁾

K-레이션은 한국인의 기호를 고려해 K-1~K-6까지 6가지 종류로 구성되었다. 구성품은 주요품목 11가지와 부속품목 5개로 구성되었다. 11가지의 주요품목은 흰밥과 김치, 멸치 파래무침, 돼지고기 조림, 쇠고기 조림, 오징어 조림, 콩치 조림, 두부전, 콩자반, 장조림, 쏘세지 조림 등 반찬 10가지였다. 5가지 부속품목은 부속대, 숟가락, 판따개, 소상자, 대상자였으며, 부속대는 인삼차, 가루고추장, 설탕, 소금, 껌, 담배, 휴지, 성냥으로 구성되었다.⁵⁷⁾ 6종류의 K-레이션은 흰밥을 기본으로 10가지 반찬이 적절하게 편성한 것이었

53) 대통령비서실, 위의 문서.

54) 『매일경제』, 1967년 10월 23일.

55) 『매일경제』, 1968년 1월 9일.

56) 주월사정리단, 앞의 책, 1185쪽.

57) 상공부, 「국무회의 의안번호 제176호(1967.6) C-레이션 대미납품교섭에 관한 추진 현황」.

으며, 각각의 메뉴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한국형 전투식량의 메뉴구성

메뉴 구성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주요 품목	흰밥 멸치과래무침 김치	흰밥 돼지고기조림 김치	흰밥 쇠고기야채조림 김치	흰밥 오징어조림 두부전	흰밥 콩치조림 뽕자반	흰밥 쏘세지조림 장조림
부속 품목	부속대, 숟가락, 판따개, 소상자, 대상자					

* 출처: 상공부, 「C-레이슨 대미납품교섭에 관한 추진현황(1967)」.

그러나, 주월한국군이 국산 전투식량을 공급받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앞선 1967년 2월이었다. 이것은 미군 군납이 아니라 국민들의 위문품 형태였다. 1966년 12월 8일 국방부는 쌀밥과 김치 등 반찬으로 구성된 한국형 전투식량 15만 상자(2천 7백만 원 어치)를 구매하여 파병장병들의 성탄절 위문품으로 보내기로 했기 때문이다.⁵⁸⁾ 이렇게 보내진 K-레이션은 1967년 2월 10일 한국군에게 처음 보급되기 시작하였다.⁵⁹⁾ 당시 한국정부는 미국에서 시제품에 대한 기술검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1966년 10월 6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전투식량 30만식 시험생산’에 돌입한 상태였었다.⁶⁰⁾ 국방부도 이에 따라 우선 10월 27일 15만식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1967년 2월 7일 납품이 완료되었다.⁶¹⁾ 이후에도 1967년 1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내각에 대해 파병장병들에게 ‘김치보내기

58) 『경향신문』, 1966년 12월 8일.

59) 최용호,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군사편찬연구소, 2007, 878쪽.

60)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업무연구서 제1호-전투식량 30만식의 시험생산방법의 연구(1966.10.17)」.

61) 상공부, 「국무회의 의안번호 제176호(1967.6) C-레이슨 대미납품교섭에 관한 추진 현황」.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라고 지시하면서 한국형 전투식량의 보급은 이어졌었다.⁶²⁾

1966년 10월 전투식량 30만식 시험생산은 K-레이션의 대량생산을 통한 제품화 과정에서 중요한 경험이었다. 시험생산을 통해 제품생산의 여건을 확보하고, 제품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시험생산에 참여한 업체는 12개의 생산업체와 2개의 부속대 제조업체 등 모두 14개였다. 대한종합식품에서는 10월 7일 선정된 14개 업체를 소집하여 대통령의 의도와 생산계획을 설명하고, 본격적인 생산준비에 돌입하였다.⁶³⁾ 당시 전투식량을 생산한 업체와 품목별 배당량은 <표 2>와 같다.

<표 2> 생산품목 수량 하청업자별 배당표

제품명	부종류	소요량	제조사	배당량	소재지
흰밥	평1호	300,000	영풍어업주식 Co	150,000	삼척
			조선수산수출(주)	150,000	포항
돼지고기조림	휴대	50,000	동창실업 Co	50,000	속초
소고기양채조림	휴대	50,000	유창산업(주)	50,000	제주
멸치과래무침	휴대	50,000	블로식품(주)	50,000	마산
쏘세지조림	휴대	50,000	조일식품공업사	50,000	서울
콩치조림	휴대	50,000	대림수산(주)	50,000	죽변
오징어조림	휴대	50,000	조일산업(주)	50,000	강구
두부전조림	평3호	50,000	원양수산 Co	50,000	감포
콩자반	평3호	50,000	국제수산(주)	50,000	충무
장조림	평3호	50,000	대한냉동공업 Co	50,000	양포
김치	평3호	150,000	화남산업 Co	150,000	나주
부속대		300,000	동신산업	150,000	대전
			서울약품	150,000	서울

* 출처: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전투식량 30만식 시험 생산계획(1966.10.7), 13쪽.

62) 『매일경제』, 1967년 1월 17일.

63)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업무연구서 제1호-전투식량 30만식의 시험생산방법의 연구(1966.10.17)」.

또한, 대한종합식품은 각 생산공장의 기술책임자를 집합시켜 본격적인 생산에 따르는 제조기술 및 품질관리 사항을 교육하였다. 당시 서울에 위치한 조일식품 주식회사에서 대한종합식품의 연구실장 및 기술요원이 강사가 되어 규격해설, 원료신선도 및 배합, 제조방법, 품질관리법, 위생관리 등을 강의하였다. 또 12명의 훈련된 기술감독원을 각 생산공장에 상주시켜, 원료의 신선도, 배합 기계조정, 살균조건, 냉각, 보관, 위생 등을 감독하게 하였다.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대한종합식품의 연구실에 보내 분석 평가하도록 하였다.⁶⁴⁾

통조림 제조를 위한 제관용 시설도 보완이 이루어졌다. 당시 이것은 삼화제관이라는 업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일본으로부터 장비를 도입·설치하였다. 국내 기술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해 일본 기술진들이 방한하기도 하였다. 1966년 12월 24일 장비도입과 운영에 관한 교육이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장비 가동이 시작되었다. 당시 이것은 국내 유일의 국제수준의 통조림 제관시설이었다. 이전까지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하여 왔던 내부도장관을 이때부터는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게 되었던 것이다.⁶⁵⁾

시험생산 과정에서 내부적인 검토문제도 제기되었다. 국방부로부터 사양규격서를 받았으나, 농산물과 수산물 재료의 계절적인 수급의 제한, 포장에 대한 국내 제조기술의 낙후로 인한 품질의 문제, 현재 국내설비로 미군 레이션 상자규격품 생산의 불가능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⁶⁶⁾ 계절적 영향을 받는 식품재료에 대한 소요량의 적기공급 문제도 고려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64)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전투식량 30만식 시험 생산계획(1966.10.7)」.

65) 삼화제관주식회사, 「삼화제관주식회사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낸 문서-수출용 통조림 공관 및 C-Ration 제조시설 완료와 현황보고(1967.1.17)」.

66)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업무연구서 제1호-전투식량 30만식의 시험생산방법의 연구(1966.10.17)」.

아래 문제들은 해결되었다.⁶⁷⁾ 또한 시험생산과정 중에 미국측의 국내 통조림업계에 대한 산업기술조사도 진행되었다. 이 조사는 미 군납의 필수과정 중 하나였다.⁶⁸⁾

시험생산 과정을 거친 뒤 1967년 10월 7일 첫 군납 계약이 체결되고, 본격적인 한국형 전투식량의 생산이 개시되었다. 이후 1968년 5월에는 1968년 7월부터 1969년 6월까지 1년분 11백만 달러의 납품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에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군할 때까지 한국형 전투식량은 계속해서 생산 보급되었다.⁶⁹⁾

4.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 결과

가. 식량문제 해소와 외화 획득

K-레이션의 개발과 보급은 주월한국군의 전투식량분야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K-레이션의 보급으로 한국군은 한·미 및 한·남베트남 간의 협정에서 채워지지 못했던 ‘한국인의 독특한 지방적 욕구’의 식량을 공급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K-레이션의 보급을 통해 당시 주월한국군은 미군으로부터 A·B·C-레이션을 공급받고, 남베트남군으로부터 쌀과 식염을 공급받는

67)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업무연구서 제2호-계절품목의 재고투자의 시기 규모 및 방법의 연구(1966.10.27)」. 특히 김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김장철인 11월 하순에서 12월 하순 1개월간으로 이 시기를 노치면 원료획득이 거의 불가능하고, 봄 소채(蔬菜)는 인공재배로 인해 높은 가격이 소요되었다. 또 콩치, 고등어, 멸치 등 수산물도 계절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컸다.

68)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통조림 업계에 대한 미측의 산업기술조사 실시 의뢰(1966.11.25)」.

69) 『매일경제』, 1968년 5월 21일; 『동아일보』, 1968년 5월 24일.

가운데, 국내로부터는 K-레이션과 된장, 고추장 등을 공급받게 되었다. 당시 한국군의 1인당 1일 급식기준은 미군으로부터 A 또는 B-레이션 4.5L/B, C-레이션 1/6박스, 남베트남으로부터는 백미 800g, 식염 15g, 그리고 한국에서는 고추장 28g, 된장 20g, K-레이션 1/24박스(15개 품목)을 공급받았다.⁷⁰⁾ <표 3>은 당시 한국군의 급식기준을 나타낸다.

<표 3> 한국군 급식기준

획득 부대	품 목	단위	급식기준		비 고
			주월군	본국	
미군	A·B-레이션	L/B	4.5		A-레이션: 35개 품목, B-레이션: 22개 품목
	C-레이션	Box	1/6		1일 2식 급식(조·중식), 석식은 K-레이션
남 베트남 군	백미	g	800	576	백미는 자유급식
	식염	g	15	20	
본국	고추장	g	28	10	
	된장	g	20	90	
	K-레이션	Box	1/24		15개 품목(부속대 포함)

* 출처: 주월사 정리단, 『월남전종합연구』, 1199쪽.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군은 하루에 2끼는 A, B-레이션 또는 C-레이션을 먹었고, 1끼는 K-레이션을 급식하였다. 하루에 1끼는 한국형 전투식량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남베트남으로부터 지원받은 백미도 포함되었다. 이로써, 한국군은 식량보급면에서 남베트남과 미군 양측으로부터 식량을 제공받고, 국내로부터도 전투식량을 제공받게 됨으로써 당시 채명신 사령관의 언급처럼 국내는 물

70) 주월사정리단, 앞의 책, 1199쪽.

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먹는 군대로 불릴만하였다.⁷¹⁾ 또한 쌀 잉여분이 발생해 이를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대민 구호물자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⁷²⁾

한국형 전투식량은 베트남 파병장병에게만 보급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정부는 파병장병뿐만 아니라 민간 파견기술자들에게도 이것을 공급하고자 하였다.⁷³⁾ 또한, 국내에서도 1971년 3월 프리덤볼트(Freedom Volt) 작전에 참가한 장병들이나 1972년 10월 유신당시 계엄군 등에게 제공되면서 국내의 장병들도 한국형 전투식량을 경험할 수 있었다.⁷⁴⁾

한편, 한국형 전투식량의 미 군납을 통해 한국의 수출실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대한중합식품은 1968년 1월부터 연간 1200만 달러의 수출을 시작으로, 1973년도까지 총 5,639만 달러의 전투식량을 수출하였다.⁷⁵⁾ 이러한 수출실적은 당시로서는 매우 큰 규모였다. 1968년 상공부에 따르면 1968년 9월 기준 1천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올린 회사는 2개, 5백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올린 회사는 7개에 불과한 상태였다. 그런데, 한국형 전투식량의 군납을 담당했던 대한중합식품은 825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출실적 3위업체가 되었다. 또 5백만 달러 이상 기업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다.⁷⁶⁾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의 물품 군납을 통한 외화수입이 1억 8천 8백만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중 전투식량이 약 30% 정도의 비

71) 당시 주월한국군의 식단 열량은 미군 및 남베트남군보다 높았다. 이것은 한국군이 Same Base, Same Level을 적용받아 미군과 동일한 식량을 제공받고, 추가적으로 남베트남군으로부터 쌀과 식염 등을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주월사정리단, 앞의 책, 1199쪽.

7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3권』, 국방부, 2003, 148쪽.

73) 『매일경제』, 1967년 10월 7일.

74) 『동아일보』, 1971년 3월 1일; 『매일경제』, 1972년 10월 21일.

75) 주월한국군사령부, 『귀국보고(1973)』.

76) 『매일경제』, 1968년 10월 28일.

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⁷⁷⁾

한국형 전투식량의 개발과 생산은 한국군의 전투력 향상과 전투식량 개발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한국군의 전투식량 개발은 베트남전쟁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는 비빔밥, 햄 볶음밥, 아몬드케이크, 볶음김치 등 다양한 전투식량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⁷⁸⁾ 또한 당시 국내 식품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희(遊休) 상태에 있던 통조림 공장에 하청을 줌으로써 국내 유희시설의 활용 및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국가의 지원으로 미군 납품생산시설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적 수준의 생산 및 위생시설을 갖추는 성과도 있었다.⁷⁹⁾

나. 정부주도 특수목적 사업의 효과와 한계

대한중합식품은 과월한국군에 대한 한국형 전투식량 공급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정부주도로 설립된 회사였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제기획원, 상공부, 국방부, 외무부, 재무부, 농림부, 산업은행 등 정부 관계부처와 기관의 지원 하에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설립목적과 추진과정은 결과적으로 조기에 성과를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수한 설립목적과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은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에는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즉, 베트남전쟁의 지속여부와 미군에 대한 군납이라는 외부상황의 변화에 취약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사업초기부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1966년 9월 5일 국내 한 언론은 대한중

77) 최동주, 「베트남 파병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미친 영향」, 『동남아시아연구』 제11호, 2001, 212쪽.

78) 『중앙일보』, 2015년 11월 4일.

79) 『경향신문』, 1966년 9월 5일; 『매일경제』, 1967년 10월 7일.

합식품을 ‘한국적 의지의 표상’이라고 칭찬하였다. 그렇지만, 동시에 ‘베트남전쟁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통조림의 수출시장개척과 국내소비촉진을 통한 식생활개선책도 진지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⁸⁰⁾

1970년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미국은 1968년 후반부터 베트남에서 부분적인 철군을 시작하였고, 한국군도 1971년 말부터 1단계 철군을 시작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국산 전투식량의 납품 규모는 급속히 감소하였다. 실제로 대한종합식품은 1972년까지만 해도 전체 매출액 중 약 65%가 군납이었지만, 1973년엔 약 20~30%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었다.⁸¹⁾ 또, 1970년에는 미군납의 주체였던 태평양사령부가 구매계약을 늦추면서 납품량을 추정해 미리 생산했던 통조림의 재고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일도 발생하였다.⁸²⁾ 이에 따라 한국 국방부에서도 주월한국군의 철군에 맞춰 K-레이션 생산계획을 축소 조절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⁸³⁾

1973년 3월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완전철군하면서 대한종합식품은 중대한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내 내수판매와 수출 판로 개척 등 당면과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쇠고기밥, 닭고기밥, 소시지밥, 팔밥, 비빔밥 등 각종 밥통조림, 굴통조림, 삼계탕 및 인삼 주스 등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해외 수출의 성과도 있었지만, 군납 수요가 사라진 데 따른 위기는 매우 컸다. 그리고, 1974년 대한종합식품의 전액 출자자였던 산업은행이 업체의 매각을 결정하면서 대한종합식품은 한국스레트그룹(벽산그룹의 전신)에 인수되었다. 1988년에는 (주)팽귤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80) 『경향신문』, 1966년 9월 5일.

81) 『매일경제』, 1973년 1월 25일.

82) 『매일경제』, 1969년 6월 6일.

83) 국방부, 「작전952-380(1972.11.15), 작전기획국장이 군수기획국장에게 보낸 협조전」.

1991년 진로그룹으로 다시 넘어가는 등의 과정을 거치다 2008년 최종 부도처리되었다.⁸⁴⁾

5. 결 론

지금까지 베트남전쟁 시기 파월한국군의 식량보급 문제와 K-레이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한중합식품의 설립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베트남전쟁 당시 파월한국군의 식량보급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남 베트남 및 미군의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파병기간이 경과하면서 한국형 식량보급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한국정부의 주도하에 K-레이션이라는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중합식품이라는 회사가 설립되어 K-레이션의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였다. K-레이션은 미군 군납을 통해 베트남의 한국군에게 보급되면서 한국군의 전투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외화획득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군의 첫 해외파병이었던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식량보급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처음으로 개발했던 전투식량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군인들의 전투식량 문제는 현재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현대전쟁은 보급과 군수의 전쟁이라고 하듯, 군수의 문제는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이와 발맞춰 전투식량문제는 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계속해서 진화를 겪고 있다. 현재 한국군은 종류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전투에서의 편의성을 증진한 전투식량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84) 『부산일보』, 2013년 12월 23일.

비상식량 및 여가활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도 전투식량을 응용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투식량 발전의 출발점은 바로 베트남전쟁 당시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의 식량문제 및 전투식량 개발에 관한 선도적 연구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도 지니고 있다. 먼저,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단계에서 국내 학계 연구자들의 활약에 대한 미시적인 측면의 접근은 확인하지 못했다. 또 군의 전투식량 개발이 국내 유관산업에 미친 영향도 실증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베트남전쟁시기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은 군대와 기업 간의 협업이었다는 점에서 크게는 전쟁과 경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의 공백이 채워지길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19. 12. 27, 심사수정일 : 2020. 2. 6 게재확정일 : 2020. 2. 18.)

주제어 : 베트남전쟁, 주월한국군, 전투식량,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K-레이션, 네이틱

<참고문헌>

1. 1차 사료

- 경제기획원, 「식료품 공업에 관한 번스틴 처장 회한(1967.1.26)」 .
- 국방부, 「한미실무자급 합의서(1964.9.6)」 .
- _____, 「한미군사실무약정서(1965.9.6)」 .
- _____, 「한미군사실무자협정서(1965.2.8)」 .
- _____, 「한월군사실무약정서(1965.9.5)」 .
- _____, 「한월군사실무자 협정서(1965.2.7.)」 .
- _____, 「작전952-380(1972.11.15.), 작전기획국장이 군수기획국장에게 보낸 협조건」 .
- 농림부,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행정감독체계 일원화(1968.2.28)」 .
- 대통령비서실, 「보고번호 제67-583호, 과일장병에 대한 국산전투식량 공급에 관한 건의(1967.8.31.)」 .
- _____, 「보고번호 제67-754호, 과일장병의 전투식량(C-레이슨) 생산 공급에 관한 보고(1967.10.17.)」 .
- _____, 「문서-대비정 1335.21-140, 과일장병전투식량(씨-레이슨) 생산공급을 위한 긴급부족자금 조치에 관한 지시(1967.10.20)」 .
-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업무연구서 제1호-전투식량 30만식의 시험 생산방법의 연구(1966.10.17.)」 .
- _____, 「전투식량 30만식 시험 생산계획(1966.10.7.)」 .
- _____, 「업무연구서 제2호-계절품목의 재고투자의 시기 규모 및 방법의 연구(1966.10.27.)」 .
- _____, 「씨레이슨 대미 교섭 경위와 대책에 대한 건의(1966.11.8.)」 .
- _____, 「국방장관과 합동군사고문단장과의 회의록(1966.11.7.)」 .
- _____, 「통조림 업계에 대한 미측의 산업기술조사 실시 의뢰(1966.11.25)」 .
- 삼화제관주식회사, 「삼화제관주식회사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낸 문서-수출용 통조림 공관 및 C-Ration 제조시설 완료와 현황보고(1967.1.17)」 .

- 상공부, 「상공부장관이 UNKRA 대표에게 보낸 서신(1954.5.10.)」 .
_____, 「국무회의 의안번호 제176호(1967.6) C-레이슨 대미납품
교섭에 관한 추진현황」 .
- 외무부, 「한국군월남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원조에 관한 주한미대사공
한 실천현황 1966년도 종합검토 보고서(1966.12.30.)」 .
_____, 「한국군월남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원조에 관한 주한미대사공
한실천현황 보고-경제협조부분(1967.6.12)」 .
- 주월한국군사령부, 「귀국보고(1973)」 .
- 과월장병지위위원회, 「과월장병에게 김치보내기 운동계획(1967.1.23)」 .
-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국, 「선발대장에게 부여할 임무(1964.7.10)」 .
- 한국산업은행,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의 직할 시설 문제 건의에 대한
의견(1967.2.9)」 .

2. 단행본 및 논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권』, 국방부,
2001.
<http://uci.or.kr//G901:A-0006018350>
- _____,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2권』, 국방부, 2002.
<http://uci.or.kr//G901:A-0006035640>
- _____,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3권』, 국방부, 2003.
<http://uci.or.kr//G901:A-0006045829>
- 국회도서관,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이명턴위원회 청문록)』, 국회입법
조사국, 1971.
- 김일성, 「월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국제적 의무
로 된다(조선인민군 제203부대 군인들과 한 담화(1966.10.19))」 . 『김일성
전집』 제37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 373~384쪽.
- 마르틴 반 크레펠트 저, 우보형 역, 『보급전의 역사』, 플레닛미디어, 2010.
- 박태균, 『베트남전쟁』, 한겨레출판, 2015.
- 오제연 외, 『한국현대생활문사 1960년대』, 창비, 2016.

- 윤충로, 『베트남전쟁 참전의 안과 밖』, 『한국현대생활문사 1960년대』, 창비, 2016, 167~190쪽.
- 이신재,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군사편찬연구소, 2017.
<http://uci.or.kr//G901:A-0008082242>
- 이훈섭,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쌤터, 1991.
-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국방부, 1981.
<http://uci.or.kr//G500:1310377-00000000134512>
- _____, 『과월한국군전사 제10집』, 국방부, 1985.
- 주월사정리단, 『월남전 종합연구』, 주월사정리단, 1974.
-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 팔복원, 2013.
<http://uci.or.kr//G701:B-00093047546>
- 최동주, 『베트남 파병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미친 영향』, 『동남아시아 연구』 제11호(2001.1); 205-244,
<http://uci.or.kr/I410.ECN.0102.2009.910.005729329>.
- 최용호,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군사편찬연구소, 2007.
<http://uci.or.kr//G901:A-0006172629>
- 과월장병지원위원회, 『자유의 십자군』, 과월장병지원위원회, 1967.

3. 신문 및 인터넷 자료

- 『경향신문』 . (1966.12.8). “쌀밥, 김치도 담긴 한국식 C레이션 제조.”
- 『경향신문』 . (1966.8.31). “종합식품회사 설립.”
- 『경향신문』 . (1966.9.5). “통조림 월남행.”
- 『대한뉴스』 . (1966.7.23). “제580호 채명신 장군의 기자회견.”
- 『동아일보』 . (1968.5.24). “과월군 C레이션 11백만 달러 한미, 공급계약 체결.”
- 『동아일보』 . (1969.10.23). “월남에 복귀 심리작전단.”
- 『동아일보』 . (1971.3.1). “대한종합식품 참가장병들에게 쌀밥통조림 회사.”
- 『동아일보』 . (1974.11.6). “대한종합식품 완전 민영화.”
- 『매일경제』 . (1966.5.25). “종합식품 공업부문위 설치.”
- 『매일경제』 . (1966.9.2). “종합식품회사 발족.”
- 『매일경제』 . (1967.1.17). “과월장병에 김치 보내기.”

- 『매일경제』 . (1967.2.28). “국산 김치통조림 합격.”
- 『매일경제』 . (1967.10.7). “식품공업계에 달리·박스.”
- 『매일경제』 . (1967.10.23). “C레이션 가공 본격화.”
- 『매일경제』 . (1968.1.9). “1백 30만불 획득.”
- 『매일경제』 . (1968.5.21). “미, 구매계약을 승인.”
- 『매일경제』 . (1969.6.6). “재고처리 골치 C레이션 납품 부진.”
- 『매일경제』 . (1968.10.28). “5백만불 이상 9사, 백만불 수출은 71사.”
- 『매일경제』 . (1972.10.21). “대한종합식품서 통조림 12만통 계약사에 기증.”
- 『매일경제』 . (1973.1.25). “종합식품 올부터 군납 크게 줄어 내수 판매에 차중.”
- 『부산일보』 . (2013.12.23). “[Sea&Talk] (주)펙귤 F&B 김영조 영업이사.”
- 『중앙일보』 . (2015.11.4). “미군 전투식량에 피자·파스타...상운서 3년 가.”
- 미국 육군 군인연구발전공학센터(<http://nsrdec.army.mil/#/>). (검색
일: 2019.10.17).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Type Combat Ration(K-MRE)'s Development Process During the Vietnam War

Lee, Sin-jae

So far, there has been not enough research on the matter of military provisions Korean Forces during the Vietnam War.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 of combat food for Korean Forces during the Vietnam War and the Korean type combat ration(K-MRE) that emerged to resolve it.

The Korean Forces in Vietnam were basically supplied with food from South Vietnam and the US Military Assistance Command in Vietnam. However, as the issue of Korean food was raised continually,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Korea General Foods Co. to resolve the problem of Korean type combat ration, called 'K-Ration' and to achieve results in acquiring foreign currency during the Vietnamese War.

The Vietnam War was the first overseas dispatch of Korean Forces, and it w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the modernization of the Korean military. In this regard, the case studies during the Vietnam War are still useful.

Keywords : Vietnam War, Korean Forces in Vietnam, Combat Ration(MRE),
Korea General Foods Co(KOGEFOOD), K-Ration, Natick

